

프로포즈 - 3344 여성 맞춤형도집회

토크쇼 & 드라마

첫째 날 - 토크쇼 사랑이야기

“프로포즈, 듣기만 해도 설레시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된다면 제가 아들 받아쓰기 숙제를 도와주는 대신 여기에 온 보람이 있을 거예요.”

왕성한 방송활동과 아내로, 어머니로 분주하게 사는 백지연 앵커는 “가장 힘들 때 어머니도 내게 힘이 되어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셨고 힘이 되어주셨다”며 “제 마음을 채워주고 뿌듯하게 해주시는 제가 느끼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 제목이 프로포즈인데 엉뚱한 다른데 가서 구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날 - 토크쇼 결혼이야기

“예수님과 영원한 사랑에 빠져보세요”

배소영(홍보회사 경영)

저는 중학교 일학년 아이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어요. 큰 아이는 다섯 살 될 때까지 애를 봐주시는 분 손에서 컸어요. 일을 가진 여자들을 화려하고 멋있게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고될 때가 많아요. 아이한테 집에 있는 엄마들처럼 해 주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늘 미안하고 내가 이기적인 엄마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내일 모레 마흔인데 젊고 잘 나갈 30대 초반에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영원히 내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고 큰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것도 내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으로 늘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분을 만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시현(숙명여대 화학과 교수)

저는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유학을 가서 혼자 생활하던 때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교회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어디로도 갈 수가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 좀 해 달라고 했어요. 그 때 수술을 받고 깨어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시현아 내가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수술실 천장에 계셨던 거예요.

저는 교회에 거부감이 많아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라며 논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한국에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공부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열등감이 많고 일그러진 자아를 가졌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힘든 일을 겪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직 저처럼 큰일을 당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만나시길 바래요. 말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중의 한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은실(젊은 부부학교 스태프)

여섯 살인 큰 아이가 선천성 심장 기형인 다운증후군이예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보름동안 저는 눈물만 흘렸고 남편은 가슴으로 울며 저보다 더 많이 아파했어요. 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질문을 계속 하다가 보름째가 되던 날, 내가 그 원인을 알면 뭐 하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잘 키우자 라는 결론을 내렸고 하나님께 수없이 여쭙 본 결과였어요.

어떻게 제가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는 답이 없었죠. 두 돌 된 아이를 수술실로 떠나 보낼 때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누굴 찾았겠어요. 그 아이를 누가 지켜줄 수 있겠어요. 그 때 깨달았어요. 나는 저 아이를 키울 수 없고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늘 답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라는 거였죠.

저는 제 아이의 삶에 좋은 계획이 있다고 믿는 소망이 있어요. 제 아이를 키우면서 저의 편협한 행복관과 세계관이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장애를 가진 분들을 보면 그 분들은 그렇게 운명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를 보면서 그 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분들을 가족처럼 느끼고 그들 안에 있는 영혼의 깨끗함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고민하고 슬퍼하며 사는데 우리 아이는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앞으로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면 얼마나 시련이 많겠어요. 그래도 언제든지 저와 아이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나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죽고 싶기도 했고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안에 알 수 없는 껍 채워짐, 힘들지만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송채환(텔런트)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교회 밖만 나가면 왜 나는 이렇게 타협을 해야 하나, 나는 세상에서 혼자 같다는 생각이 엄습해 와서 너무 힘든데 여기만 오면 무척 편해요. 어떨 때는 나가지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다 여기에 꼭 붙들어 놓고 싶어요. 우리 여기서 나가지 말자고. 매주 여러분을 뵈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을 다 자매라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셋째 날 - 드라마 행복의 조건

“주님만이 완전한 행복”

친구들 사이에서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었던 영미(송채환). 영미가 자살기도로 입원했다는 말에 친구들은 병원으로 향한다.

“니가 왜 자살을 하니? 넌 행복에 겨워서 그래!”라는 친구들의 질투어린 말에 영미는 그동안 숨겨왔던 얼룩진 자신의 삶과 남편의 구타를 이야기 한다. 모두의 눈에 ‘행복한 삶’으로 보였던 영미의 인생. 그녀가 털어놓은 고백에서 행복의 조건은 돈과 명예가 아님을 깨닫는다. 영미로 분한 송채환이 “내 삶은 단 한 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울며 부르짖을 때, 프로포즈에 참석한 대상자들도 함께 울었다.

대상자들은 행복이란 세상것으로 채울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 출처 : 온누리신문